

# 이집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08. 4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7
IV. 국제신인도 .....	10
V. 종합의견 .....	12

## 이집트(Egypt)

### I. 일반개황

면적	1,002천 km <sup>2</sup>	G D P	1,322억 달러(2007년)
인구	75.4백만 명(2007년)	1 인 당 GDP	1,754 달러(2007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화단위	Egyptian Pound
대외정책	친서방, 친아랍	환율(달러당)	5.53(2007년 말 기준)

- 이집트는 한반도의 5배에 해당하는 넓은 국토면적과, 인구 72백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럽, 중동, 아프리카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음.
- 풍부한 노동력, 정치적 안정, 아랍과 서방을 아우르는 유연한 외교 정책 등으로 역내 정치, 경제, 외교의 중심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문명의 발상지인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풍부한 문화적 유산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도시로는 수도 Cairo(인구 17백만)를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의 관광 중심지인 Alexandria(4백만), 주요 외화수입원인 수에즈 운하 운영 중심지인 Suez(5십만) 등이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e</sup>
경제성장률	3.2	4.1	4.5	6.8	7.1
재정수지 / GDP	-7.8	-7.6	-8.3	-7.9	-7.5
소비자물가상승률	4.5	11.3	4.9	7.6	9.5

자료: IMF, EIU.

#### □ 견조한 경제 성장세 시현

- 2002~03년, 9.11테러 여파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 2004년 이후 견조한 성장세 유지
- 2006년 및 2007년에는 관광산업 호조, 투자환경 개선 및 정부의 경제 개혁 추진에 따른 해외투자 유입 증가, 소득세 인하, 천연가스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한 내수 확대에 힘입어 6.8~7.1%의 높은 경제 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08에도 경제성장세는 지속되어 약 7%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소비자물가 상승세

- 2006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집트 파운드화의 강세로 인한 수입 물가 인하 효과로 전년대비 다소 감소한 7.64%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에는 식료품가격 및 에너지 가격 불안 등의 요인으로 다시 소폭 증가한 9.5%의 물가상승률을 기록함.

- 파운드화 강제 기조가 물가 상승압력을 일부 상쇄하고 있으나, 정부의 석유 보조금 인하정책이 지속될 경우 에너지 가격 인상이 다시 물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 또한 인플레이 압력을 가중시켜 2008년 소비자 물가는 다소 상승하여 10.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 □ 만성적 재정적자

- 비대한 공공조직, 광범위한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높은 경제 성장에 힘입은 세수 확대, 각종 보조금의 점진적인 인하 등의 개선 요인이 있으나 2005년 대선 당시 공약사항인 공무원 임금인상, 2006년 기준 GDP의 106%에 달하는 대내 공공부채 원리금 상환 등으로 당분간 적자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005년 및 06년 각각 8.3%와 7.9%에 달하였으나, 2007년에는 공기업 매각, 세수확대 등의 영향으로 재정적자 규모가 소폭 축소되어 7.5%를 기록하였음.
- 2008년에는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 불안 요인으로 인한 정부 보조금 인상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 3세대 이동전화서비스 허가권 매각 및 세수 확대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정적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2. 경제 구조 · 정책

### [구조적 취약성]

#### □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고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 관광, 수에즈운하 운영, 기타 공공 서비스 등 서비스 산업이 국가 GDP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섬유, 식료품가공 중심의 제조

업이 18.2%,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개발 부문이 14.8%, 면화 중심의 농업 부문이 13.9%를 담당하고 있음.

- 확고한 제조업 기반이 미약하고 관광 등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편으로, 중동 정정불안, 테러사건 발생, 세계 운송 경기 등 대내외 충격에 경제 전반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성장 잠재력]

#### □ 천연가스,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

- 최대 유전지역인 수에즈 유전이 고갈되면서 석유생산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는 반대로 천연가스는 Nile Delta 및 서부 사막지역을 중심으로 잇달아 대형 유전 발굴에 성공,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음 (가스 생산량 기준, 세계 6위, 아프리카 3위).
- 2007년 7월 기준, 전세계 매장량의 1.1%에 해당되는 2조1천억 입방미터의 확인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LNG 프로젝트 추진, 가스 수출 pipeline 건설, 석유화학제품 생산 확대, 내수생산 증대 등의 이유로 3조 4천억 입방미터의 매장량 보유를 목표로 함.
- 이집트 정부는 지금까지 천연가스 생산량의 대부분을 내수 전력생산에 사용하였으나, 향후 이를 주력 수출품목으로 육성코자 요르단, 시리아, 터키를 경유하여 서부 유럽까지 연장되는 Arab Gas Pipeline 건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이 완공되어 동 파이프라인을 통해 요르단, 시리아 앞으로 수출을 개시하였음.

## [정책성과]

### □ Nazif 총리,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 추진

- 전임 Obeid 총리가 경제 개혁 부진으로 퇴진하고, 2004년 7월에 출범한 Nazif 내각은 공기업 민영화, 수입관세인하, 통관절차의 간소화, 금융 산업 개편, 무역 자유화 조치 등의 광범위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무역환경 개선 및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부품 등 359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하하고, 무역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법규를 개정 중이며, 외국인 투자 및 생산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또한 Nazif 내각은 공기업 민영화를 최대 경제현안으로 간주, 국영 Telecom Egypt, Egypt Air, Alexandria Bank 등 그동안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우량 기업들을 매각대상에 포함시켜 활발한 민영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국제 투자회사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3월, 무역산업부가 6개월간 이집트산 시멘트와 쌀에 대해 수출금지령을 내리는 등 정부는 최근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로 대외무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

###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sup>e</sup>
경상수지	3,743	3,922	2,103	2,635	1,100
경상수지 / GDP	5.3	5.0	2.3	2.4	0.8
상품수지	-4,201	-6,576	-7,745	-8,438	-16,859
수출	8,987	12,320	16,073	20,546	25,486
수입	13,189	18,895	23,818	28,984	42,345
외환보유액	13,400	14,108	20,508	24,341	30,188
총외채잔액	29,446	31,177	30,096	29,339	30,200
총외채잔액 / GDP	41.3	39.8	32.3	27.2	22.8
D. S. R.	12.8	7.4	7.3	5.6	6.9

자료: IMF, EIU, IIF.

#### □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

- 상품수출 증가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수입 증가로 인해 상품수지는 적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며, 적자 폭 또한 확대되고 있음.

\* 상품수지 적자 규모 : 2004년, 93억불 → 2005년, 111억불 → 2006년, 126억불 → 2007년, 177억불

- 반면, 이집트의 전통적인 외화 획득원인 관광 수입, 해외 근로자 송금 및 수에즈 운하 운영 수익은 크게 증가하여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경상수지 추이 : 2004년, 32억불 → 2005년, 22억불 → 2006년, 27억불 → 2007년, 4억불

- 2007년에도 천연가스 수출 증가와 여타 서비스, 이전수지 흑자 등의 요인으로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하였으나, 국제유가 급등 및 경제성장에 따른 수입량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폭이 크게 확대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는 2006년 2.4%에서 2007년 0.8%로 감소함.

## [외채상환능력]

### □ GDP 대비 외채비중 감소, 외환보유액 증가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04년 40% 수준에서 점차 감소하여 2006년 27%를, 2007년에는 23%를 기록하는 등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임.
- 외환보유액은 2004년 142억불, 2005년 206억불, 2006년 245억불, 2007년 203억불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를 기록하고 있음.

## III. 정치 · 사회동향

### 1. 정치 및 국제관계

#### [정치 안정]

#### □ Mubarak 대통령의 안정적 정국운영

- Mubarak 대통령은 원내 의석 70%를 확보하고 있는 집권 국민민주당(NDP), 군부 지지, 이슬람교 과격세력의 효과적 통제 등을 통해 정국을 안정적으로 주도하고 있음.
- \* 1981년 이래 대통령 직을 수행하고 있는 Mubarak 대통령은 헌법 개정으로 2005. 9월 역사상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접선거에서 재차 승리함으로써 2010년까지 추가 임기 5년을 보장받음.
- 이후, 2005. 11월 실시된 의회 선거에서 여당 의석이 70여석 감소하고, 이집트 현행법이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최대 야권 세력인 '무슬림형제단'이 종전 17석에서 88석(약 20%)으로 의석수를 크게 증가시킴으로써 정국 변수로 등장. 그러나, 2008년 4월 치러진 지방자치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는 결

과를 보임에 따라 무슬림 형제단의 정치적 지지기반은 아직 확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 1981년 이래 비상조치법 계속 시행, 민주화 및 정치개혁 목소리 점점

- 국가 전복 및 테러기도 무력화를 명목으로 비상조치법을 유지하고 있음. 1994년부터 3년 단위로 효력을 연장해 왔으며, 2007년 3월, 정부는 34개의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비상조치법의 영구시행을 준법화함.
- 이집트의 야당 및 재야세력은 크지 않으나,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서민층의 열악한 경제 여건에 대한 불만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하고 있음. 정부는 2007년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선거감독에 대한 사법권한의 소멸, 정당 소속의 의무화, 종교 세력을 지지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불법화를 선언하는 등 국제사회로부터 민주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 [국제관계]

##### □ 서방국가들과 우호관계 유지

- 1991년 걸프전 당시 연합군에 가담하면서 미국 및 서방세계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으며, 서방 강대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을 주요 대외정책으로 삼고 있음.
- 특히 미국은 매년 대규모 경제,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최대 교역대상국임. 이집트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및 이라크 문제에서 서방측 목소리를 전달하고 미, 중동간의 중재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집트내 안정적 정치세력 유지 필요성을 각인시켜 미국의 이집트 민주화 진전 압력을 무마시키고 있음.

### □ 중동 평화구축 중재자 역할 수행

- 이집트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이후 아랍권내에서 이스라엘과 최초로 평화협정을 1979년에 체결하였고, 인근 아랍국과도 원만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협상 등 중동 평화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 □ 대 아프리카 외교관계 강화

- 2005년 이집트·이디오피아 정상회담 및 NEPAD(New Partnership for Africa's Development) 정상회의를 이집트에서 개최하는 등 아프리카 외교 강화에 노력하고 있음.
- 이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한 발판 마련, 나일강 수자원의 안정적 확보, 이집트 상품의 대 아프리카 수출 확대 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 2. 사회 및 소요사태

### □ 전반적인 사회 안정 유지

- 회교원리주의 단체의 활동, 이라크전을 전후한 반미 시위, Mubarak 대통령의 장기 집권을 비난하는 집회 등이 있었으나, 대규모 시위나 전면적인 내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 Obeid 총리 집권 5년 동안 빈부 격차와 소외 계층 증가, 고학력 청년 실업 증가 등 경제난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였으나, 2004년 중반 내각 개편을 통해 집권한 나지프 총리가 세계개혁, 금융개혁 민영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제난 타개와 실업문제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음.
- 세계 2위 밀 수입국인 이집트는 최근 곡물가격 폭등으로 인한 빵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나, 정부가 사태 진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어 식량위기가 대규모 시위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음.

#### □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의 간헐적 테러 발생

- 외국인 관광객 등 62명이 사망한 '97년 Luxor 테러사건 이후 이집트 정부의 강력한 대응으로 소강상태에 있던 테러가 최근 간헐적으로 재발하고 있음.
- \* '05. 4, 카이로 중앙광장 자폭테러 (외국인 3명부상), '05. 7, 시나이반도 삼엘셰이크 폭탄테러 (64명사망), '06. 4, 시나이반도 다합 폭탄테러 (19명 사망) 등
- 최근의 국지적 테러 사건은 알카에다와 연계된 일부 극단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고 있으며, 이슬람계 최대 야권 세력인 Muslim Brotherhood, Gamma Isalmiya, al-Jihad 등은 최근 강경 투쟁 노선에서 선회, 합법화를 통한 정당 결성을 도모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주요 기관별 신용도 평가순위

- o OECD : 4등급 (2005. 10) → 4등급 (2006. 10) → 4등급 (2007. 10)
- o ICRG : 83/140 (2005. 12) → 89/140 (2007. 7) → 89/140 (2008. 1)
- o I.I : 67/173(2005. 9) → 70/174 (2007. 3) → 72/174 (2007. 9)
- o Euromoney : 72/185 (2005. 9) → 71/185 (2007. 3) → 71/185 (2007. 9)

###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국 EXIM : 최고 부보율 적용
- 영국 ECGD : 최고 부보율 적용
- 독일 Hermes : 단기 인수 가능하나 제약조건이 있을 수 있음

### 3. 외채상환태도

'90년대 초반 파리클럽 리스케줄링 경험

- 1987, 1990, 1991년 파리클럽 리스케줄링을 경험한 바 있으며, 이후 정상 상환.

최근 외채부담 경감, 외환보유액 증가

- 리스케줄링 이후 이집트 정부는 외채도입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2006년 총 외채 규모는 31억불 수준으로 GDP 비중은 29%를 기록하여 2002년 44% 대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2007년, 총 외채 규모가 33억불 수준으로 증가하는 듯 보였으나 이는 동국 외채의 1/3 이상이 유로화로 고정된 바, 미 달러화에 대한 유로화의 평가절상으로 인한 영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됨 (2007년 말 기준, GDP 대비 총 외채규모는 23.3%로 축소되었음).
- 아울러 외환보유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채무상환비율(D.S.R) 또한 10% 미만을 기록하고 있어 채무상환 불능위험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요르단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5	2006	2007	주요 품목
수 출	706,795	853,227	1,166,579	전기전자, 섬유류, 기계류
수 입	201,357	450,000	613,806	유류제품, 원유, 원면, 섬유류
합 계	908,152	1,303,227	1,780,385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국교수립 : 1995년 4월 13일(북한과는 1963. 8. 25 수교)

- 주요협정 : 문화협정('68), 무역진흥협정('84), 항공협정('88), 이중과세 방지협정('94), 투자보장협정('96), 사증면제협정('98)
- 우리나라와의 2007년 교역규모는 18억 달러에 달함.
  - 주요 수출품은 전기전자, 석유류를 중심으로 약 11.7억 달러, 수입은 유류제품, 원유, 원면 등을 중심으로 약 6.1억 달러를 기록함.
- 해외직접투자(2007년 12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17건 149,895천 달러

## V. 종합의견

- 관광 등 서비스 산업 호조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분 성장, 정부의 경제 개혁 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2007년 7.1%의 높은 경제성장을 시현하였으며, 2008~09년에도 6% 이상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만성적인 재정적자가 해결과제로 남아있으나, 수입급증으로 인한 상품수지 적자폭 확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전수지 흑자 확대로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GDP 대비 외채 부담 또한 점차 감소하고 있음.
- 최근 식량위기로 인한 소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서민 경제의 개선이 늦어져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경제난으로 인한 불안 요인이 상존하나, 현 Mubarak 정부는 대규모 시위로의 확산을 통제하는 등 적극적 사태해결 의지를 보이며 안정적 정국 운영을 위해 노력함.

전문연구원 이주영(☎02-3779-6686)

E-mail : [newclear@koreaexim.go.kr](mailto:newclear@koreaexim.go.kr)